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1000가구 확대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을 오는 2022년까지 1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 37억 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 20억 원,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20억 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6억 원, 친환경 전직아용 해충구제 지원 5억 원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이란 여유 있는 사육 공간, 가족 운동장 확보, 축사 악취 관리, 농장 경관 조성 등 동물복지 사육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해 기존 관행축산과 차

전남도, 2022년까지 계획...現 143호 지정

지정 농가에 인센티브 자금 300만원 지원

별화를 뒤 운영하는 축산구조다. 정부의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징검다리 단계로 전라도에서만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월 말 현재까지 143호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호, 돼지 16호, 육계 15호, 산란계 20호, 오리 7호, 염소 10호 등이다. 심사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

사 2단계로 진행된다.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족 사육 밀도, 가족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함께 200점 가운데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지정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용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족 생애에 적합한 여건 조성 및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축산 농가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관광산업 활성화위원회 개최. 이흥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에서 광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위한 '2019년 제1차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의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과학교육,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효성 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실이 최근 3년간 시약구매 실적과 폐수처리 실적이 전무해 실효성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전남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교육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 따로 현장 따로란 비판과 함께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탐구·실험·토론학습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첨단 과학교육, 융합인재교육 탐구활동이 가능한 과학교육을 구축하고자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 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의융합형 과학교육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819개교 중, 최근 3년간 과학교육실 시약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가 125개교(초 30, 중 54, 고 4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지침(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수와 폐수액은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격리해 보관했다가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폐수처리 전문업체가 일괄 수거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폐수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가 2016년 460개교, 2017년 449개교, 2018년 503개교로 매년 도내 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가 폐수처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전남부무추진본부장

광주시 신재생에너지사업 탄력 ‘국가 에너지계획에 반영’

남구 멀티터미널 직류배전 플랫폼 구축 추진

광주시는 시가 추진 중인 중앙직류배전(MVDC) 사업이 국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의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 계획으로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중앙직류배전은 신재생에너지 수송을 확대, 도심 전력부하 집중지역

배전용량 확대, 전기차 직류 급속 및 무선 충전시스템 변화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배전분야와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기술을 말한다.

광주시는 한국전기연구원 등과 함께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멀티터미널 직류배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기획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뒤 국비 반영을 건의해 왔다.

이번 사업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원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에너지산업에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직류 기반 에너지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목포 · 장성 · 해남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9년 1031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한 영 빈 (520515-1665923)
최 후 주 소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7-10

위 망 한영빈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6월 10일

공 고 인 : 장경자, 한명훈, 한영호
주 소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7-10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6월 7일
공고기간 : 2019. 6. 10~ 2019. 8. 10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 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 업 진 단 ■ 의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동구, 음식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

광주 동구가 ‘음식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업소를 10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후 주방환기시설 청소·교체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 20개소에 설치비의 80%, 최대 1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일반음식점으로 △소규모 중국음식, 치킨 등 취급음식점 △관광지·국제행사 주변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동구청 누리집(http://www.donggu.go.kr) ‘고시공고판’을 참고,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동구청 보건위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구 화정2동,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실시

광주 서구 화정2동 자생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아침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화정2동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한 해 동안 추진할 의제로 결정한 것.

지난 2월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주일초등학교 등교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설립) 서명운동 전개, 주민회합 마을축제 개최에 대해 의제를 선정, 자생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로 함께 실천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통장단, 동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설립(전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구,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광주 남구는 공중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4곳의 공중 화장실을 새롭게 고치기로 했다.

남구는 7일 “시설 노후화로 장애인과 어린이 등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주민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노후 공중 화장실 4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정비가 추진되는 공중 화장실은 노대동 불빛 근린공원 화장실, 비룡해 방산동 봉선 근린공원 화장실, 월산동 월산 근린공원 화장실, 봉선동 방죽 어린이 공중 화장실이다. 남구는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7월초까지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북구,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추진

광주 북구가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본격 나선다. 북구는 “11일 북구청사에서 지역 내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공공·민간시설과 개방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9일 밝혔다.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지역의 학교, 아파트, 교회, 은행 등 공공·민간시설이 소유한 주차장을 유휴 주차시간에 ?최소 2년 ?하루 7시간 이상 ?10명 이상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2천만원 내에서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광산구,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공연 개최

광주 광산구가 15일 오후 5시 광산문화회관에서 창작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공연을 개최한다. ‘왕세자 실종사건’은 2010년 창작 초연한 작품으로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베스트 창작뮤지컬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는 등 빼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조선의 궁궐에서 왕세자가 실종된 시간 전후 있었던 사건을 재해설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은 4과 과정에서 내관 구동기와 나인 지숙이의 숨겨진 사연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름 높은 서재형 연출가, 뮤지컬 ‘영웅’의 한아름 작가, 실력과 황호준 작곡가로 구성된 트리오의 첫 번째 작품이자 대표작이기도 공연 관람료는 3,000원이고, 관람권 4장에 1만원의 ‘민원의 만찬’도 진행 중이다. 예매는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자체 한 공연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833)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